

special feature I

A

Jung Yeondoo 정연두

티라나비엔날레(2001)

정연두는 사진과 영상, 퍼포먼스 등을 통해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드나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사진 작업 시리즈 '지니(2001)' 와 벽지에 춤추는 사람을 인쇄한 뒤 무대를 만들어 기성세대들이 춤을 퍼포먼스를 선보인 〈보라매 댄스홀〉(2001) 등의 작품은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그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매체로 작업해오고 있다. 1969년 진주에서 출생한 작가는 1994년 서울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미술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티라나비엔날레, 후쿠오카트리엔날레(2002), 이스탄불트리엔날레(2003), 리버풀비엔날레(2004, 2008) 등 수 많은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Evergreen Tower〉를 선보인 바 있다.

Jung Yeondoo has proceeded with crossing boundaries of reality and fantasy through photography, video and performance. Jung's works 'Bewitched(2001~)' that realize people's dreams come true by photography, (Borame Dance Hall)(2001) that made older generation people to dance on the floor with the wall printed their dancing features are highly praised in the art world. And the artist has continued various media works. Majored in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 received a M.F.A. from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He was invited to many exhibitions including, Tirana Biennial(2001), Fukuoka Triennale(2002), Istanbul Biennale(2003), Liverpool Biennial(2004), and presented his work (Evergreen Tower) at Korean Pavilion of Venice Biennale in 2005.



(Evergreen Tower) 2001 32 Photographs 80×55cm each @ Yeondoo Jung